

모든 경영의 시작 “기록”

2016년 후계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 성황리 종료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용욱)는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호텔 선샤인(대전 중구)에서 2016년도 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후계낙농인 교육)을 호평 속에 마쳤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를 맞이한 본 교육의 교육생들은 절정에 이른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교육열을 보이며 세밀하게 진행된 교육일정 내내 높은 집중력을 자랑했다.

입교식에 참석한 이승호 협회장은 “낙농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낙농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대한민국 낙농의 희망이자 꽃인 후계낙농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낙농 선배이자 지도자로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용욱 청년분과위원장은 “과거에는 목장을 ‘관리’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경영’이 필요한 시대”에 이르렀다면서 “목장경영전문화교육이 즐거운 목장, 살맛나는 목장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을 보냈다.

제도적 지원 없다면 낙농 선진화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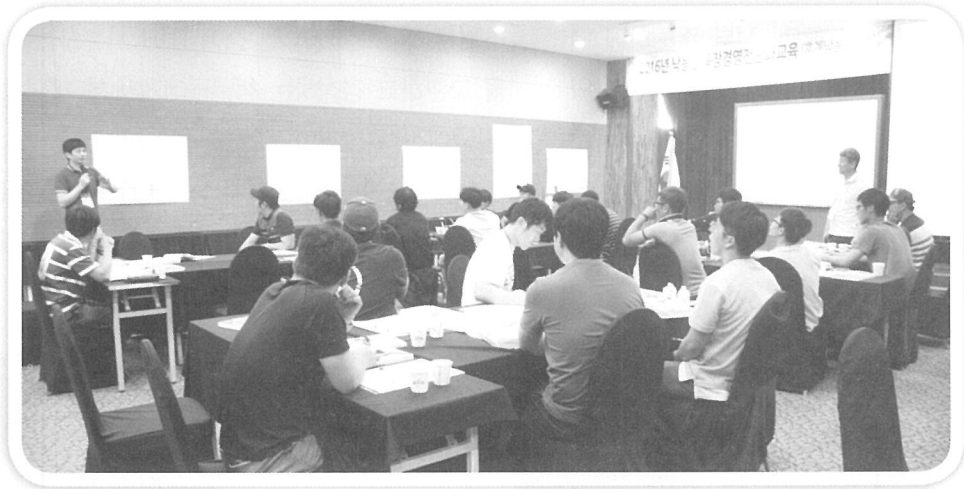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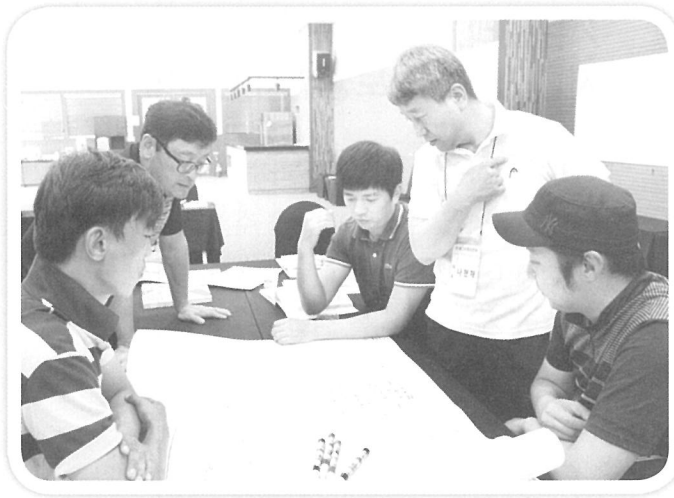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대내외 낙농환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조석진 소장은 국제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낙농선진국들은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철저히 제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국 원유사용량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다르게 하는 일본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하에 빠르게 변하는 국내 낙농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낙농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생산자는 책임과 사명감, 수요자와 소비자들은 올바른 소비질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록관리, 자금관리부터 보상까지 한번에

이어서 목장경영 개념, 목장회계 기초에서부터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까지 배울 수 있는 목장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6명씩 조를 이루어 가상의 목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보는 재무상태표 작성 실습 및 발표시간에 교육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별로 작성·발표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다시 우유 생산비를 산출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경청하는 청년들에게서 ‘후계’낙농인을 넘어선 ‘목장경영인’의 모습이 엿보였다.

자연재해 및 환경분쟁시 농가 대응요령과 기초 방역교육, 축사 환경관리, ‘소통과 이해’를 주제로





한 심리교육도 마련됐다.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 연구소장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웃목장을 방문할 때에는 최소한 방역장화만이라도 신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연재해나 환경분쟁시에는 작은 기록도 보상의 근거가 되므로 습관처럼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을 강조했다. 최낙훈 낙농컨설턴트는 축사 시설 및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환경에 민감한 젖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고,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축사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축사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요령을 설명했다. 한편 '소통과 이해' 시간에는 교육생들이 사회극에 참여하여 부모와 자녀역할을 연기하면서 상호간의 입장을 되짚어 보는 자리가 됐다.

2박 3일간의 교육은 강동구(경북 김천, 서부목장) 수료생의 자가 목장 운영현황 및 소감발표로 마무리됐다. “기억보다 기록, 약품보다 관리”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강동구 수료생은 목장경영을 전담하기 전과 후의 수익성 변화를 공개하고 전산 기록관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교육 동기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납유처, 지역, 목장규모 등 제각각 다른 환경에 있는 평균연령 32세의 청년 30명은 후계낙농인이라는 동일한 입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챙겼다. 이들이 교육기간 동안에 보였던 뚜렷한 목표의식과 열정, 여기에 단합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연륜이 더해져 대한민국 낙농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

